

■ 르포 - 강진군 사초리 복섬 개불잡이

3시간에 100만원 “돈 캐러 가세”



강추위가 몰아친 24일 새벽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주민 200여명이 마을 앞 공동어장인 '복섬'에서 개불을 잡고 있다. 사초리 어촌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년에 하루만 개불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돈 캐러 가세” 24일 새벽 썰물이 되자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어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선착장으로 모여들었다. 선착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14ha 규모의 마을 공동어장인 '복섬'으로 개불을 채취하기 위해서다. 매서운 갯바람을 막기 위해 얼굴만 내놓고 온 몸을 풍뎡 갑판 모습 이 꼭 이슬람 전사 같다.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손전등을 달고 등 뒤에는 배터리가 담긴 가방을 맨 모습이 이색적이다. 배에서 내린 주민들은 잠시 나뭇가지와 폐 그물로 지린 모닥불에 몸을 녹이느라 쉴새 없이 흡연하며 개불 채취에 빠져들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굽은 장정 2명이 한 조각 돼 한 사람은 4~5개의 다리가 달린 쇠스랑으로 갯벌 속을 뒤엎고, 다른 사람은 뜰

채 모양의 그물로 개불을 담아냈다. 노인들과 여성들은 물이 빠진 갯벌 위에서 개불 구멍을 찾아 호미 등 자신만의 도구로 개불을 잡아냈다. 이날 200명의 주민들이 3시간여

민들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석화(굴)와 낙지통발, 전어, 개불, 바지락, 꼬막 등 연중 바다를 논밭 삼아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문재열(50) 사초리어촌계장은

갯벌이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췄던 개불이 다시 모습이 보이자 3년전부터 어촌계를 중심으로 본격 채취에 나섰다. 어민들은 개불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은 잡지 않거나 휴식년제를 지키고 있다. 개불은 추위가 제맛을 내는데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다. 생김새나 이름 탓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도 있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달짝지근한 맛과 향이 일품으로 예주인들의 겨울철 안줏감으로 최고다. 길이 0~15cm, 굵기 3~5cm가 최상품으로 꼽히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전을 용해하는 성분이 있어 고혈압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개불은 정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려 말 신분이 즐겨 먹었다고도 전해진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주민 200명 1만 5천여마리 잡아 ‘어족 보호’ 2년에 한차례만 허용

동안 잡아낸 개불은 모두 1만 5천여마리, 1억 5천만원(1마리당 1천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민 1인당 50만~70만원의 적지 않은 수익금이 돌아갔다. 사초리 어민들은 개불 보호차원에서 마을 어촌계 주관으로 2년에 한 차례씩 채취하고 있으며 한 가정당 최대 2명이 참여할 수 있다. 사초리는 150가구 400여명의 주

“개불 보호를 위해 마을 공동 어장으로 지정, 2년 마다 한 차례씩 채취하고 있다”면서 “개불이 올해에도 각 가정당 100만원 안팎의 용돈을 안겨줬다”며 기뻐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2년에 한 차례씩 짝퉁한 고소득을 안겨주는 개불이 복섬에 다시 등장한 것은 8년 전부터다. 10여 년 전 간척사업으로 많은

‘안전한 전남 축산물’ 1천27억 투입

분뇨 처리시설 434곳 선진화... 가공장 설치도 지원

전남도가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축산농가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 모두 1천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809억원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축산시설 현대화 100억원과 우람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20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160억3천500

만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434곳에 108억원 등 19개 사업에 373억원을 지원하며 축사 현대화 사업 100억원 등 12개 사업에 3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 가공장 설치 20억원 등 6

개 사업에 59억원을 투자하고 가축 예방접종 42억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96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특화사업비 140억원 등 6개 사업에 1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 천연염색 중심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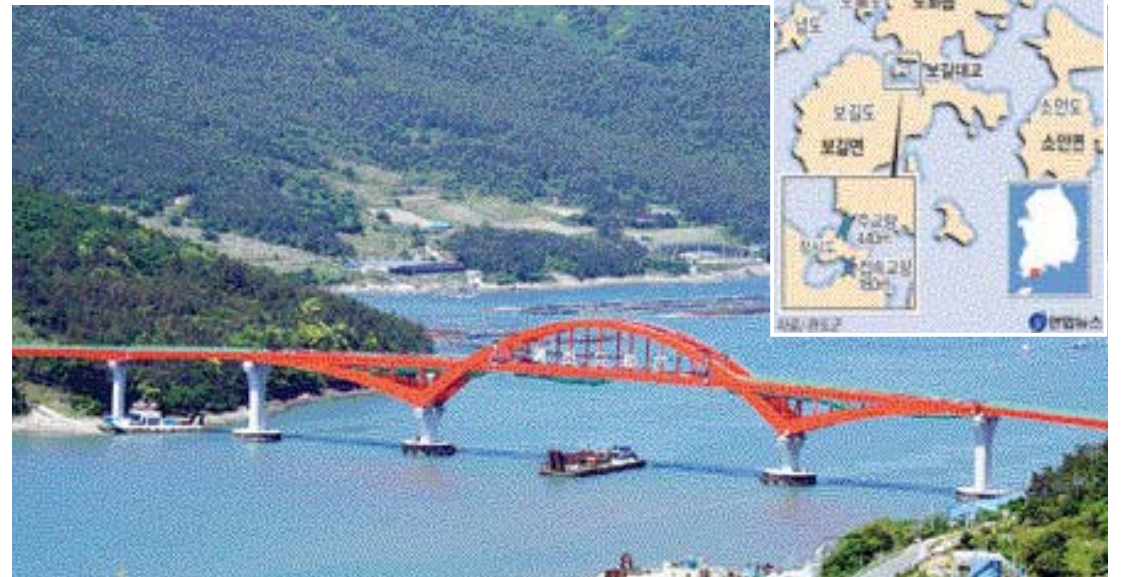
농림부 ‘쪽 염색기술’ 육성사업 선정 30억 지원

나주가 천연 염료와 염색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난다. 나주시는 ‘나주 쪽 전통기술 산업화’사업이 2009년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 수준의 초일류 천연 염료와 염색 거점 지역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나주 쪽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은 2009년부터 3년간 제품개발·생산·마케팅 등에 30억원이 집중 지원

될 예정이다. 특히 다시면 회지리 일대에 건립될 기술인증센터는 2만여㎡ 부지에 천연염색 제품을 인증하고 실험, 분석할 수 있는 현대식 장비와 설비 등을 갖추게 된다. 또 현대식 천연염료 추출시설과 가공시설도 건립되며 초·중·고교생의 교복이나 원아복 등 상품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

다. 나주지역은 전국 유일의 전통공예 염색장(匠)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으며 천연염색문화관과 관련 기업이 운영되는 등 천연염색 산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다시면에 문을 연 천연염색문화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상설전시장과 자료관을 비롯해 판매장과 체험장, 교육 세미나실, 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신정훈 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쪽 염료 재배를 통한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완도 ‘보길대교’ 29일 개통



완도 노화와 보길면을 연결하는 ‘보길대교’가 오는 29일 개통한다. 지난 2000년 6월 착공된 보길대교는 길이 620m와 접속도로 1.4km로 총 사업비 539억 원이 투입됐다. 보길대교가 개통되면 천혜의 자연 경관과 고산 윤선도 유적지 등 문화 유산을 자랑하는 보길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보길대교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국회 등을 방문, 관계자들을 설득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완도군 내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이 지역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jechung@

장흥군 ‘산 찾아주기 서비스’

4만1천ha 대부분 방치... 산림경영 컨설팅도

장흥군이 올해부터 ‘산 찾아주기 서비스’와 함께 ‘산림경영 컨설팅’을 시행한다. 장흥지역 산림면적은 약 4만1천ha로 산 주인도 2만 명을 웃돌고 있으나 대부분 방치돼 있다. 특히 상속 받거나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산 주인이 대부분이어서 산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 기본적인 현황과 산림경영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산 주인들에게 임야도와 항공사진 등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주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지 안내 서비스도 제공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와 지형에 맞는 소득 작목 등 산림소득사업 계획도 조언해 주기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관내 면적의 67%가 산림인 만큼 이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해양 바이오 창업 지원센터’

전남도, 건립 본격화

전남도가 해조류 등 해양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할 ‘해양 바이오 창업 지원센터’건립을 본격화한다. 해양 바이오 창업지원센터는 울 하반기 완도 농공단지에 착공돼 오는 2010년 완공된다. 센터 건립에는 국비 50억원 등 206억원이 소요되며 9천907㎡부지에 3천306㎡ 규모로 지어진다. 센터는 시험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해조류 등을 해양 생물자원을 소재로 신물질 등을 개발해 벤처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소장에는 이창국(62) 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이 임명됐다. /김주정기자 jkimnews@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notices and ads. Top left: '영양관리권을 드립니다' (We provide nutrition management rights). Top middle: '풍수지리, 역학강좌' (Fengshui and Astrology Course) by Baekhyeongri. Top right: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Real Estate Auction Specialist Company). Middle: '건물 매각' (Building Sale) advertisement with a photo of a building. Bottom left: '장교집수안내' (Officer's housing guide) and 'SONY 모든것' (All SONY products). Bottom middle: '미세정분' (Micro-powder) advertisement. Bottom right: '마성패치산업(주)' (Maseong Patch Industry Co., Ltd.) with phone number 1566-8200.